서구문물 유입에 따른 정재학파와 미토학파의 사상적 대응 비교

김 지 은*

Ⅰ. 머리말
Ⅱ. 명청교체 이후 중화사상의 전개 양상
Ⅲ. 영남과 미토번의 학문적 전통
Ⅳ. 대외적 위기상황에 대한 사상적 대응
  1. '理'에 대한 인식 차이
  2. 기독교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Ⅴ. 맺음말

국문초록

명청교체 이후 조선과 일본은 청 중심의 국제관계 속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게 '중화문화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신념은 중요한 가치와 자부심이었으며, 그 수호는 역사적 사명감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화를 유교문화가 아닌 일본 그 자체로 보는 자국 중심적인 해석이 도출되었다.

서구 문물 유입에 대한 정재학파와 미토학파의 사상적 대응은 유교적 사회 질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정

*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 / 30416cong@hanmail.net

재학파는 천주교의 위협 속에서 유교문화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氣에 우선하는 理의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미토학파는 신도와 결합한 일본 중심의 중화사상의 영향으로 '보편적 원리로 인식되던 理의 부재'현상이 나타났다. 그들은 氣의 불변성 · 고정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두 학파는 모두 기독교라는 서양세력의 사회적 침투를 경계하며, 서양을 열등한 위치에 두고 이를 배척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였다. 그러나 정재학파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이념적 측면에서 척사(斥邪)를 주장하였고, 유교 사회의 수호를 강조하였다. 미토학파는 일본의 존립을 위하여 천황을 정점에 두고 기독교를 대신할 새로운 체제 유지 사상을 확립하였다. 나아가 일본의 존립을 위해서는 서양의 기술 및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화사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전개는 19세기 이후 양국의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 주제어
정재학파, 미토학, 중화사상, 위정척사, 존왕양이

Ⅰ. 머리말

18세기 이후 동아시아에는 천주교의 확산과 서양세력의 통상요구 등으로 서구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화(中華)'로 상징되었던 국제질서는 동요하였고, 각 국에서는 체제 유지와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상적 대응을 모색하였다.

'명청교체'는 전통적인 중화사상의 단절을 야기한 사건이었다. 이적(夷狄)이 중원을 차지하여 華가 된 이 사건은 '중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각국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18세기에 이르면 청뿐만 아니라 조선 · 일본 · 베트남 등에서도 자국을 중심으로 중화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중화를 위협하는 서구문물에 대한 위기감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였고, 그 대응방식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서구문물 유입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사상적 대응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명의 멸망으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화의 본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그 이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19세기 이후 양국은 전혀 다른 역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즉 명청교체 이후 한국과 일본의 중화사상 변용 과정과 그 흐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20세기 동아시아 역사의 한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하여 비교 대상은 정재학파와 미토학파로 한정하였다.[1] 두 학문의 지역적 배경이 되는 영남과 미토번은 유학에 기초 한 학문적 전통을 확보한 곳이었고, 활발한 사상적 논의가 진행된 곳이었다. 서양세력의 접근에 대한 두 지역의 대외적 위기의식은 '척사(斥邪)'와 '양이(攘

1) 19세기 조선 유학과 일본 미토학의 사상적 비교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桂島宣弘, 「19세기에 있어서 한 · 일 사상사의 일고찰 -後期 水戶學과 許愈 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19, 2005 ; 이미림, 「화서 이항로의 조선중화의식 연구 -일본 후기 미토학파의 대비-」, 『동양고전연구』 35, 2009 ; _____, 「華西思想의 實踐的展開 : 일본 후기 미토학과의 대비」, 『화서학회』 35, 2012.

夷)'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영남의 척사운동과 미토번의 존왕양이운동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정재학파와 미토학파는 보수적인 사상적 특징을 기반으로 서양세력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각 학파가 배척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중화'의 본질은 다른 것이었고, 배척의 기저가 되는 사상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2)]

먼저 명청교체 이후 양국에서 중화사상 및 자국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영남과 미토번의 학문적 전통을 검토하여 각 학파의 위상과 사상적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적 위기에 대한 정재학파와 미토학파의 사상적 대응을 "'理'에 대한 인식 차이"와 "기독교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검토하겠다. 한정된 지역과 특징으로 사상적 대응과 관련한 전체적인 양상과 그 변화를 조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시대를 공유한 양국의 차이를 보다 실제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Ⅱ. 명청교체 이후 중화사상의 전개 양상

중국 중심의 '화이(華夷)'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중화사상은 동아시아 국제

2) 미토학의 일반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詳說 日本史 B』, 山川出版社, 2001, 221쪽. "미토번의 대일본사 편찬사업을 중심으로 일어난 학파로, 주자학을 중심으로 국학과 신도를 종합해 천황존숭과 봉건질서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후기에는 도쿠가와 나리아키(德川斉昭)를 중심으로 후지타 유코쿠, 그의 아들 후지타 도코(藤田東湖), 유코쿠에게 배운 아이자와 세이시사이 등의 학자가 존왕양이론을 주장하였다. 이후 메이지유신에 영향을 주었다" ; 『詳解 日本史 B』, 三省堂, 2003, 198쪽. "미토번에서는, 『대일본사』의 편찬과정에서 생겨난 미토학의 입장에서 아이자와 야스시와 후지타 도코가 주장한 존왕론과, 구미열강을 배척하자는 양이론이 많은 무사들에게 받아들여져 갔다. 미토학의 존왕론은 막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인 위기가 본격화되자 국학의 존왕사상과 함께 막부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질서를 유지하는 구심점이었다.[3] 문화적 · 종족적 · 지리적 관념이 혼합된 형태의 중화사상은 한(漢) 이래로 유교문화의 수용 · 발달 여부를 '화(華)'의 기준으로 삼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국제관계로 제도화 되어 조공책봉 체제를 완성시켰다. 송대 북방민족의 침입을 겪으며 한족(漢族)은 그 위기 극복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화이의 구별을 더욱 엄격히 하였고, 주자학은 이를 규범화 하였다.

명을 멸망시킨 청조의 등장은 중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발시켰고, 이는 청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 일본 등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청나라에서는 만주족의 한화(漢化)를 막으면서 동시에 만(滿), 한(漢), 회(回), 몽(蒙), 장(藏) 등 여러 종족에게 동질감을 부여하는 천하일가(天下一家)의 관점에서 중화를 재해석하였다. 이로부터 지리와 인종과 상관없이 덕(德)의 성취 여부에 의거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문화적 華의 개념이 재정립되었고, 청조의 정통성에 저항하는 존왕양이(尊王攘夷)의 '華' 관념은 억제되었다.[4] 특히 옹정제(雍正帝, 재위 1722~1735)는 만 · 몽 · 한의 제국을 표방하면서 한족의 문덕(文德)과 만주족의 무공(武功)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중화라는 해석을 내놓았다.[5]

한족의 중국을 '중화'로 인식하던 이들에게 청조의 등장은 이적(夷狄)이 중국을 대신하여 華가 된 사건으로 기존의 중화사상을 전복시키는 큰 충격이었다. 조선과 일본은 중화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였고, 청 중심의 국제관계 속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조선과 일본에서는

3) '中華'는 지역을 가리키는 中原, 나라를 가리키는 中國, 종족을 가리키는 華夏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원래 황하 중하류 지역의 농경민족 화하가 주변 유목민족보다 문화 수준이 높았던 데서 華와 夷라는 대칭 개념이 생겼다. 이 후 점차 문화와 종족의 존비까지 구분하게 되어 중화가 夷狄보다 우월하다는 관념이 생겼다(하영휘, 「柳重教(1821~1893)의 춘추대의, 위정척사, 중화, 소중화」, 『민족문학사연구』 60, 2016, 180~181쪽.

4) 민두기, 「청조의 황제통치와 사상통제의 실제 : 증정역모사건과 『대의각미록』을 중심으로」『중국근대사연구』, 일조각, 1990, 25~28쪽.

5) 한국18세기학회, 『위대한 백년 18세기』, 태학사, 2007, 35쪽.

각각 자국이 국가의 기원에서부터 본래 華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한 나라였으며, 공자의 도는 지역과 종족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을 실현한 나라가 곧 華가 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6] 즉 명청교체 이후 청 · 조선 · 일본은 각자 '자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사상'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각자 '동이(東夷)'를 자처하던 조선과 일본의 중화사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조선과 일본이 처해있던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먼저 조선은 군사적으로는 청에게 굴복하였으나 직접 지배를 받지 않는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있었고, 일본은 정치 · 사상적 측면에서 청나라와 거의 무관하게 격리되어 있었다.[7] 그러므로 새롭게 재편된 국제 질서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그 대응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양국에서 '유학'이 갖는 사회적 · 사상적 · 문화적 영향력의 차이가 결정적인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표방하였던 조선은 명을 정점으로 한 계서적(階序的) 국제질서 속에서 우위를 점하였고, 사림(士林)이 국정운영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전통적 화이관에 입각한 '중화'는 더욱 이념화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재조지은(再造之恩)'이라 칭하며 명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명이 멸망하고 청이 중원의 주인이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다. 더욱이 병자호란에서 패한 조선은 외교관계에서 청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조공책봉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외교적 수치심에서 비롯된 이념적 박탈감을 문화적 화이관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대외관계와는 별개로 조선 내부에서는 중화의 본질을 '유교문화'로 보고, 명이 멸망한 시점에서 조선만이 '유일한 중화의 계승자'라는 의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효종대 대명의리론 · 존주론(尊周論) · 북벌론의

6) 이봉규, 「實學의 유교사적 맥락과 유교 연구 탐색」, 『태동고전연구』 35, 2015, 176~177쪽.

7) 허태용,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변동과 조선왕조의 정치 · 사상적 대응」, 『역사학보』 221, 2014, 37족.

유행과, 1704년(숙종 30) 대보단(大報壇)의 설치 등은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모두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관념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화에 대한 이념을 신념화 하며 이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중화문화를 지키고 심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8)]

18세기 이후 안정화된 청과의 국제관계 속에서 다량의 서적과 새로운 학문 · 기술이 유입됨에 따라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사상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북학론과 근기 남인의 서학에 대한 학문적 접근 등은 그 대표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청의 문화적 수준을 인정하였고, 서양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인지하였다. 그 결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중화의 본질이 '유교문화'에 있다는 중화사상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중화의 계승자로 유교문화의 수호는 조선 지식인들의 역사적 사명이었고, 그들은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영남 남인 역시 중화문화의 수호를 위하여 주자학을 기반으로 한 퇴계학의 심화와 전승을 추구하였다. 그들의 화이론적 세계관 속에서 華는 퇴계학을 중심에 둔 불변하는 유교적 사회 질서와 그 문화였으며, 夷는 華의 질서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이었다. 18세기 이후 정치력을 상실한 영남 남인들은 퇴계의 계승자라는 학문적 자긍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장하였다. 그들은 퇴계의 학문이 중화의 정통을 이은 것이라 자부하였고, 이를 불변의 진리라 생각하였다. 비록 정국운영에서 배제되어 재야 사족의 처지가 되었고 새

8) 중화사상은 조선후기의 전체적 역사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이다. 20세기 초부터 조선후기 중화사상은 사대주의론 또는 유교망국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새로운 인식의 틀에서 중화사상의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조선중화주의'라는 표현과 함께 이를 문화적 자부심의 소산으로 평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조선중화주의 담론 관련하여 그 관념성과 사대성의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경섭, 「총설:조선중화주의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15~42쪽'을 참고할 수 있다.

로운 사상의 유입과 주자학 내부의 분열로 사상적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이는 그들에게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위기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화문화의 계승자로 '華'를 지키기 위하여, 여기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배척하였다. 천주교의 확대와 서구문물의 유입에 대응한 척사론의 전개는 영남 남인들에게 중화문화와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이었으며, 훗날 척사운동 · 의병운동 ·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일본에서도 청은 명의 화이질서 안에서 '夷'에 해당하던 만주족으로 명청교체는 '夷'가 '華'로 변한 즉 '화이변태(華夷変態)'로 받아들여졌다.[9] 그러나 당시 일본 내 유학의 학문적 수준과 사회적 영향력은 조선과 비교할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명 멸망 이후 조선은 나라를 초월해 자신들이 유일한 중화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그 사명감을 정국운영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일본은 상황이 달랐다. 그들에게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천황중심의 신국(神國) 사상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었다. 유학은 사회교화 측면에 유리한 도덕주의적 정치사상으로 주목받는 정도였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사상적 모색을 통해 유교문화를 정점으로 하는 '중화'가 아닌 '일본'을 중심으로 한 '중화'를 형성해 나갔다. 이는 막부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자 하였고, 청이 중심이 된 국제질서에 편입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화이론을 변용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조선 · 류큐(琉球) · 청과 네덜란드 · 에조지(蝦夷地)의 아이누(アイヌ)'등과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였다. 즉 '일본형화이질서'라 불리는 그들만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형성한 것이다.[10]

---

9) 荒野泰典 編, 「日本型華夷秩序と華夷変態」『江戸幕府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161쪽.

10)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는 일본형화이질서를 설명하면서 '4개의 창구(四つの口)'에 주목하였다. 그는 당시 막부는 4개의 창구를 통해 자국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선-[쓰시마(対馬)] · 류큐(琉球)-[사쓰마(薩摩)] · 청과 네덜란드-[나가사키(長崎)] · 에조지의 아이누-[마쓰마에(松前)]'의 관계를 설명하였다(荒野泰典, 위의 책, 160~165쪽).

한편 학자들 가운데는 “일본은 동이(東夷)이다.(쿠마자와 반잔(熊澤蕃山, 1619~1691)” 라고 하며 중국을 중화로, 일본을 이적의 나라로 인정하는 이들도 있었다.[11] 나아가 천황의 선조가 태백(泰伯)이라 주장하며 일본을 단순한 이적과 차별을 두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 나카에 도주(中江藤樹, 1608~1648) 등). 여기서 태백은 공자가 “그는 가히 지덕이라 부를만하다(『논어』「태백」편 “泰伯其可謂至德也已矣”)” 고 말한 문왕의 숙부로, 그들은 태백이 왕위 계승을 거부하고 남방(일본)으로 왔다는 전승에 주목하여(『진서(晋書)』「왜인전」), 일본 유교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선이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을 이용해 유교적 정통성을 주장하였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들의 주장은 일반화되지 못하였다.

고학파(古學派)[12]의 창시자인 야마가 소코(山鹿素行, 1622~1685)는 중국의 유학에서 탈피하여 일본적인 유학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중화를 절대시 하는 풍조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국토 · 문명 · 사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가를 내렸다. 나아가 유교 교리 이전에 일본에 성스러운 종교로서 신도(神道)가 존재했다고 하며 일본이야 말로 중화라고 주장하였다.[13] 그는 『일본서기』의 내용에 유교의 도덕 · 정치론을 연결해 “중국의 삼황오제 · 우 · 탕 · 문 · 무 · 주공 · 공자의 대성(大聖)과 일본 고대의 신성(神性)은 일치한다(『중조사실(中朝事實)』1669)’고 하며, 일본은 유교 도래 이전부터 이미 동일한 가르침이 실천되고 있었으므로 이 나라는 중국과 다름없다고 말하였다. 주자

11) 일본의 화이론 변화에 따른 중화사상의 전개 양상은 ‘와타나베 히로시 저, 박홍규 역,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 예문서원, 2007, 69~80쪽 ; 와타나베 히로시, 김선희 · 박홍규 옮김, 『일본 정치사상사 : 17~19세기』,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304~306쪽’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12) ‘古學派’란 17세기 후기부터 야마가 소코와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에 의해 시작된 유학의 한 학파로, 주자학이 신유학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하였다고 하며 직접 원시 유가의 고전에 접해 해석을 내리고자 하는 복고적인 학풍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이용수, 「古學 · 國學 그리고 尊王攘夷論」, 『東洋古典硏究』 30, 2008, 206쪽).

13) 한국18세기학회, 앞의 책, 36~37쪽.

학자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1619~1682)를 계승한 아사미 게이사이(淺見絅齋, 1652~1712)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곧 '중국'이며, 다른 나라가 '이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기존 중화개념에 포함된 민족적 · 지리적 · 문화적 · 도덕적 내용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그는 일본은 그 자체로 중국, 즉 중화라고 하였다.

일본 중심의 중화사상은 18세기 국학(國學)의 등장으로 더욱 체계화 되었다.[14]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는 『고사기(古事記)』에 대한 주석 작업을 통해 '한의(漢意)'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가 『고사기』의 주석서인 『고사기전(古事記傳)』을 쓴 목적은 일본 고유의 道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는 천황제를 일본문화의 요체로 보고 일본이야 말로 하늘로부터 황통을 이어 받은 나라라고 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논하였다.[15] 이후 일본의 중화사상은 천황을 중시하는 신도와 연계되어 청 · 조선의 중화사상과는 다른 성격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가 되면 이와 같은 흐름은 유교적 화이관에 근거한 위계적 세계 질서 및 전통적 신도와 더욱 긴밀히 결합하였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절대불변의 일본 중심적 세계관이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 만연해졌다. 후기 미토학을 대표하는 학자인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 1782~1863)는 "신주(神州, 일본)는 태양이 뜨고 원기(元氣)가 시작되는 곳으로, 태양의 자손이 대대로 황위를 이어오며 다스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본래 대지(大地)의 원수(元首)요 만국의 강기(綱紀)이시니, 우내(宇內)에 밝게 임하시어 먼 데나 가까운 데나 황화(皇化)가 고루 미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16]고 하며

14) '國學'은 일본 고전의 문헌적 연구라는 측면과 그 고전에 보이는 일본 고유의 道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녔다. 국학 연구가 추구하고자 한 것은, 형식적인 규범과 도덕적인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적인 인간 性情의 표현이었다. 즉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되고 학문에 있어서도 '사실'로서의 인간성의 추구가 시도되었다. 國學의 탄생은 그동안 중국의 사유 틀에 일본을 적용시키고자 했던 태도를 배척하고, 일본의 것으로 일본을 새로이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용수, 앞의 논문, 220~221쪽).

15) 한국18세기학회, 앞의 책, 38쪽.

전통적인 중화사상을 초월하여 확고하게 일본 중심적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서구문물의 유입 등으로 대외적 위기에 직면하자 전통적 화이관에 입각하여 서양을 '이적(夷狄)'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존왕양이론(尊王攘夷論)'은 그들이 자부하였던 우월한 일본의 사상과 천황으로 상징되는 일본을 지키고자 하는 대응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적 · 조선과 일본에서 나타난 중화지리적 · 문화적 관념을 초월해 일본을 중화로 규정하였던 그들의 유연한 화이관은 다시 서양이 포함된 국제질서에서 일본의 존립과 위상을 확립시키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였다. 즉 서양세력과 그들의 문물을 유교문화를 대신할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개국을 통해 이를 체득한 후,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한 것이다.

명청교체 이후사상의 전개양상은 첨예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양국에서 '유학'이 갖는 사상적 · 사회적 영향력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조선에게 중화로 상징되었던 유교문화는 나라를 초월하는 가치와 자부심이었으며, 그 계승은 역사적 사명감이었다. 이는 당시 조선 주자학의 수준이 중국의 것을 초월하는 독립적인 체계와 위상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유학은 조선과 달리 사상적 심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였으며, 도덕적 측면의 사회교화 사상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일본에게 중화는 일본과 일본의 문화 그 자체라는 자국 중심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고대의 신도를 유교와 결합해 천황을 정점에 둔 일본적 세계관을 형성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서구문물의 유입이라는 대외적 위기에 맞서 양국은 '각자의 중화'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지향점과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16) 會澤正志齊, 「新論」『水戶学』(<日本思想大系 53>), 岩波書店, 1978, 50쪽 ; 원문의 해석은 '아이자와 야스시 저/ 김종학 역, 『신론新論』, 세창출판사, 2016, 7쪽'의 내용을 따랐다.

Ⅲ. 영남과 미토번의 학문적 전통

서양문물의 유입에 따른 정재학파와 미토학파의 사상적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학문의 지역적 배경이 된 영남과 미토번의 학문적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남은 16세기 사림이 정국운영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은 후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정통이 계승되어 온 사림파의 근거지로 인식되었다.[17] 퇴계 이황의 등장은 영남이 가지는 학문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조대 사림의 분화 속에서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한 학파는 '남인'으로 칭해지는 정치세력을 형성하였다. 남인은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으로 중앙 정계에서 실각하였지만, 퇴계학맥을 계승한 그들의 학문적 위상은 꾸준히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다수의 남인은 영남에 기거하며 퇴계학의 학문적 심화와 전승에 힘을 기울였고, 재지 사족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갔다. 영남 내에서도 안동은 기호학파에 대칭되는 영남학파의 본산으로 남인의 입장에서 정권에 대항하는 정치적·학문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국운영에서 밀려난 이후에도 그들은 영남의 남인계 유림을 대표하며 꾸준히 중앙의 정치세력과 대립·제휴하면서 조정으로의 진출을 노렸다. 또 근기 남인과 교유 하면서 유소(儒疏)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결속력을 다져나갔다.[18]

19세기에 이르면 영남을 둘러싼 상황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세도정치의 시행은 조정과의 연계에 단절을 가져왔고, 수탈과 기근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충은 극심해져 갔다. 여기에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배척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의 교도가 영남으로 유입되었고, 천주교 세력을 확산시켜 나갔다. 또 퇴계학에 대한 이해와 지향점의 차이에 따라 학맥 간의 분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19] 더욱이 안동의 영남 남인들 간에 '병호시비(屛虎是非)'로 불

17) 이병휴, 『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일조각, 1999.
18)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556~588쪽.

리는 퇴계 학맥의 도통 정립 및 향촌 운영의 주도권 경쟁과 관련한 치열한 갈등이 전개되면서 안동지역 내 퇴계학파는 김성일 계열의 호파(虎派)와 류성룡 계열의 병파(屛派)로 분열되었고 그 대립은 더욱 격화 되었다.

정재학파는 당시 영남을 대표하는 학파로 류치명(柳致明, 1777~1861)을 따르는 문인으로 구성되었다.[20] 류치명은 '소퇴계'로 일컬어졌던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제자인 류장원(柳長源, 1724~1796)과 남한조(南漢朝, 1744~1809)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이황 – 김성일 – 장흥효 – 이현일 – 이재 – 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퇴계학맥을 계승하였다. 순조 5년(1805) 문과에 급제한 이후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당시 많은 영남 남인들이 그러했듯이 벼슬에 큰 뜻을 두지 않고 대부분 사직을 청하였다. 대신 안동에서 후학들을 위한 강학과 저술활동에 매진하였으며, 그 결과 400명 이상의 문인으로 구성된 정재학파가 형성되어 영남에서의 학문적 위상을 확보하였다.

정재학파는 학맥을 통해 계승된 퇴계학을 정밀히 검토하고 이를 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들은 서양문물의 유입 등 시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퇴계학 = 정학(正學)'이라는 절대적 전제 하에 철저한 정학의 수호를 통하여 사(邪)로 총칭되는 사상 및 외교적 위협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19) 19세기 영남학파는 지역과 학맥에 따라 '① 안동: 김성일의 학맥을 이은 柳致明(定齋, 1777~1861)의 정재학파 ② 상주: 류성룡의 학맥을 이은 柳疇睦(溪堂, 1813~1872) ③ 성주: 류치명 문하에 출입하며 독자적인 '心卽理說'을 제기한 李震相(寒州, 1818~1885)의 한주학파 ④ 칠곡: 장현광의 학맥을 이은 張福樞(四未軒, 1815~1900)의 사미헌학파 ⑤ 김해: 이익의 학맥을 이은 許傳(性齋, 1797~1886)의 성재학파'로 분화되어 있었다. 이들은 학설에서 선명한 독자성을 지닌 학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퇴계학의 전통을 계승하거나 재해석하여 학풍을 정립함으로써 퇴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금장태, 「19세기 한국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와 시대인식」, 『국학연구』 15, 2009, 20~21쪽).

20) 류치명의 문인록인 「及門諸子錄」에는 423명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다. 정재학파는 혈연적 관계(전주류씨)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혼맥·학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확대되었다. 대다수 문인은 안동 동남부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소수이긴 하지만 상주권을 제외한 영남 지역 전체에 문인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19세기 류치명의 학문적 영향력이 영남 전역에 두루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지은, 「정재 류치명의 문인록과 문인집단의 분석」, 『조선시대사학보』 85, 2018).

‘理의 강조’와 ‘도통(道統)의 확립’으로 표출되었다. 그들은 퇴계학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理의 능동성을 더욱 강조하며 ‘불변의 理’를 통해 사(邪)로 총칭되는 사상 및 외교적 위협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영남 남인 내 호파의 학문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병호시비를 이끌어 나가며, 이황으로부터 이상정으로 이어진 학통을 퇴계학의 ‘도통’으로 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퇴계학의 도통을 계승한 그들에게 퇴계학인 정학을 지키기 위한 ‘척사’는 시대적 사명감과 의무로 받아들여졌다.[21]

아울러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중시한 자세는 영남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던 흐름이었다. 비록 그들의 경세론이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원론적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직면한 사회적 위기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상정으로 이어진 퇴계학맥의 학자들은 근기지역의 성호학파와의 교유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류치명 역시 그들의 저술을 읽으며 척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대적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나아가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면서 사상과 당색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의 이론을 수용·활용하는 개방적 자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22]

퇴계학의 도통을 계승하였다는 정재학파의 학문적 위상과 사명감은 학파 내에서 계승되어 온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이 더해져 ‘척사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정재학파는 개항 이후 유교적 사회질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안동을 중심으로 척사운동을 이끌어 나갔으며, 국권상실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여 의병운동 및 민족 독립운동의 선두에서 활약하였다.

일본에서 유학은 도쿠가와 막부 초기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이를 본업으로 삼는 소수의 사람들을 유자(儒者)라 부르며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였다.[23]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임기1603~1605)

21) 김지은, 「정재 류치명의 척사론과 그 전승」, 『역사교육논집』 60, 2016.
22) _____, 「정재 류치명(1777~1861)의 현실인식과 경세관」,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는 막부 사상 최초로 가신(家臣)인 하야시(林) 가문에게 유학을 전담토록 지원했고, 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 임기1680~1709)는 가신들 앞에서 직접 사서오경을 강의하기도 했다. 미토번주(水戶藩主)인 도쿠가와 미쓰쿠니(德川光圀, 1628~1701) 등 다이묘들도 유학을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유학 지식인들이 등장하여 저작 활동을 하거나 제자들을 키워 내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 쇼군에게 발탁되어 실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24]

17세기 일본유학계는 주자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양명학과 고학이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에 의해 형성된 소라이학(徂徠学)의 등장은 일본사상계의 전환점이 되었다.[25] 유학의 다양한 사상적 해석은 "이학금령(異學禁令)"으로 불리는 정치적 사건으로 통합이 시도되었다. 1790년 발표된 '칸세이(寬政) 이학(異學)의 금(禁)'은 유자로서 대대로 쇼군을 섬기던 하야시가(林家)의 사숙(私塾)인 쇼헤이코(昌平)를 막부 교육기관으로 하고, 그 명칭도 쇼헤이자카학문소(昌平坂學問所)로 바꾼 뒤 주자학 이외의 학문을 교수하지 못하게 금한 조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번교(藩敎)에서는 주자학을 정규 교수과목으로 포함하기 시작하였고, 번교 외에도 향교(鄕校)·사숙·데라코야(寺子屋)와 같은 많은 교육 기관이 설치되다. 그 결과 19세기가 되면 주자학뿐만 아니라 유교가 광범위한 무사층과 서민에게까지 보급되었고, 그들의 정치의식은 높아져갔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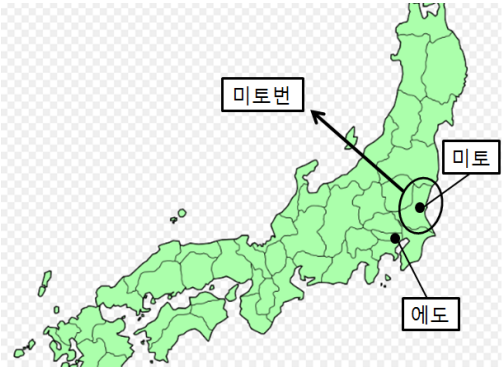
---

23) 이새봄, 「포스트-소라이학(徂徠学)의 맥락으로 읽는 도쿠가와 후기 사상사의 논점」, 『일본비평』 19, 2018, 51쪽.

24) 박훈,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2014, 143쪽.

25) 오규 소라이는 일본 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중국 고대 '성인(선왕)의 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는 『六經』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강조하며, 고어의 字義·고문의 文理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古文辭學'을 제창하였다. 아울러 주자의 경서 해석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과 독자적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도덕적 수양론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이새봄, 위의 논문, 45~55쪽).

26) 가쓰라지마 노부히로, 「'근세제국'의 해체와 19세기 전반기의 사상동향」, 『일본근대학연구』 39, 2013, 9쪽 ; 미야지마 히로시, 「'유교적 근대론'과 한국과 일본의 역사



<그림1> 도쿠가와 막부 시기 미토번의 위치

미토번(水戶藩)은 오와리번(尾張藩)·기이번(紀伊藩)과 함께 고산케(御三家)의 하나로 도쿠가와 시대에 '천하(天下)의 부장군(副將軍)'으로 불리며, 막정(幕政)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27] 미토번은 도쿠가와 막부 시기 학문과 유학이 번성했던 곳으로, 쇼코칸 또는 사숙, 향교, 연구회 등을 기반으로 학파간의 대립이 전개된 지역이었다. 미토번의 학자들은 회독(會讀)을 열어 중국의 경서와 역사서를 함께 강독하고 토론하며 학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이는 점점 정치 네트워크로 변하였다.[28] 미토번은 일본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학파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누대에 걸친 학문적 대립 관계가 있었고, 상호 배타성도 심각했다.

미토번에서는 막부 초기 2대 번주 도쿠가와 미쓰쿠니부터 유학을 장려했는데, 이후 미토번은 자타가 공인하는 학문의 번으로 명성을 날렸다.[29]

적 위치」『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 동아시아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2015, 43~48쪽 ; 이희복, 「일본적 유학의 창출 – 근세일본사상사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 『일본학보』 64, 2005, 391~392쪽.

27)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쿠가와씨 종가를 보위하기 위해 아들 중 세 명에게 각자 가문을 창시토록 했다. 그것이 오와리번, 기이번, 미토번 즉 고산케이다. 이들의 임무는 유사시에 쇼군을 보위하는 것과 종가의 후계가 단절되었을 때 양자를 내는 것이었다. 미토번은 비록 고산케 중 서열은 세 번째 였으나 지리적으로 에도에 가까웠기 때문에 미토번의 번주는 쇼군을 보위한다는 의미에서 참근교대(參勤交代)를 하지 않고 항상 에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관례였다. 이 때문에 미토 사람들은 자신의 번주를 '천하의 부쇼군'이라 여기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번주가 에도에 상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幕政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박훈, 앞의 책, 115~122쪽).

28) 박훈, 앞의 책, 185~189쪽.

29) 박훈, 위의 책, 185쪽.

1645년 도쿠가와 미쓰쿠니는『사기』의「백이전(伯夷傳)」을 읽은 후 사필(史筆)에 의하지 않고서는 후세인을 감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 하에 사관(史館)인 쇼코칸(彰考館)을 설치하여『대일본사』편찬을 시작하였다. 그 영향으로 미토번에서는 '미토학(水戶学)', 즉 역사를 중심으로 국가의 전통, 천황의 존엄, 도의의 엄정과 실행을 중시하는 학풍이 일어났다.[30] 그러나 미쓰쿠니 이후『대일본사』편찬사업은 재정난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 하게 되었다.

이후 6대 번주 도쿠가와 하루모리(德川治保, 1751~1805)가 쇼코칸 총재 다치하라 스이켄(立原翠軒, 1744~1823)에게 중지되었던『대일본사』편찬의 조속한 완결을 명하였고, 쇼코칸에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후지타 유코쿠(藤田幽谷, 1774~1826)가 발탁되었고, 그의 독특한 사상과 정치적 식견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모여 후지타파(藤田派)라는 학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대일본사』의 편찬 방침을 둘러싸고 미토번에서는 학파의 대립이 본격화 되었다. 책의 제목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붙이는 등의 문제로 다치하라파(立原派)와 후지타파(藤田派)가 대립한 것이다[31].

그 대립은 순수하게 역사 편찬을 둘러싼 것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후지타 유코쿠는 스승 다치하라 스이켄을 공격하여 번주의 신임을 얻은 후,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규합하여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섰다. 그는 상하 명분질서를 중시하였고, 천황을 신격화시키며 '국체(國體)'라는 개념을 만드는 등의 학문적 경향을 보였다. '후기미토학'이라고 칭해지는 이 학문적 경향은 그를 계승한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 1782~1863)를 통해 이론적으로

30)『대일본사』는『사기』를 따라 기전체로 서술되었고, 記 · 伝 · 志 · 表를 합쳐 397권으로 구성되었다.『대일본사』의 특징은 첫째로 진구황후에 대한 本紀를 두지 않고 황후를 后妃열전에 나열한 점, 둘째로 오토모천황의 본기를 세웠다는 점, 셋째로 南朝를 정통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대일본사』는 '존왕론' 이라는 명분론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미토학의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다(石田一良 지음, 성해준 · 감영희 옮김,『일본사상의 이해』, J&C, 2004, 192~193쪽; 208~211쪽).

31) 후지타 유코쿠는 중국에서 역사서에 국호를 쓰는 경우는 한 왕조가 멸망하고 난 뒤 그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서인데, 일본은 황통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성희엽,『조용한 혁명, 메이지유신과 일본의 건국』, 소명출판, 2016, 111쪽).

완성되었다. 한편 정통 주자학을 추종한 학자들은 이를 비판하며 반대파로 결집하였다. 이후 미토번은 메이지 유신까지 학파에 기반을 둔 대립이 격렬히 진행되었다.[32]

미토학은 도쿠가와 가문을 섬기는 무사 겸 유학자들이 현상에 대한 불만과 서양에 대한 위기감에 대응하여 황국의식을 강조하고, 사기고양과 정치적 통합을 다잡으려 했던 사상운동이다.[33] 초기 미토학은 주자학의 정치사상을 활용하면서 신도사상을 가미하여 당시의 막번체제인 봉건질서와 천황존숭을 설명한 학풍이었다. 즉 덕치(德治)를 행하는 왕자(王者)로서 천황을 존숭해야만 한다고 하며, 주자학적 명분론의 범주에서 주창된 존왕론(尊王論)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덴포학(天保学)', '스이후학(水府学)'이라 불리는 후기미토학 단계에서는 그 성격이 변하였다. 후기미토학자들은 서양세력의 접근과 도쿠가와 막부의 체제동요라는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해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종교체제를 구상하였다.[34] 그 결과 존왕양이(尊王攘夷)사상이 등장하였고, 이는 막말 존왕양이운동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유학에 기반을 둔 학문적 전통을 갖추고 있었던 영남과 미토번은 서구문물의 유입이라는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사상체계를 정립하였고 이를 실천하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자 하였던 이상적인 유교문화와 구축하고자 하였던 세계질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정재학파와 미토학파의 사상적 대응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점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2) 박훈, 「後期水戶學의 變通論과 君臣觀」, 『일본역사연구』 14, 2001, 51~55쪽 ; ____, 앞의 책, 185~189쪽.
33) 와타나베 히로시, 김선희 · 박홍규 옮김, 앞의 책, 341~343쪽.
34) 이희복, 「미토학(水戶學)을 둘러싼 근대성 담론 -비토 마사히데의 「미토학의 특질」-」, 『일본사상』 26, 2014, 99~100쪽.

Ⅳ. 대외적 위기상황에 대한 사상적 대응

1. '理'에 대한 인식 차이

조선후기 다수의 지식인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유교문화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가치론적 차원에서 氣에 대한 理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철학을 확립시켜 나갔다.[35] 영남의 정재학파 역시 퇴계학맥을 통해 계승되어 온 이기론(理氣論)을 종합·검토하는 가운데 理를 강조하는 사상을 정립하였다.

퇴계 이황의 이기론은 학맥의 전승과정 속에서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었다. 이현일은 「율곡이씨논사단칠정서변(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을 지어 이이의 혼륜설(混淪說)을 비판하였고, 理·氣 내지 四·七의 분별(分別)을 강조하며 理의 능동성을 확립하였다.[36] 이는 학계와 정계를 주도하던 기호학파(서인)에 대응하여 영남학파(남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학문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상정은 이현일로 이어진 퇴계학을 철저히 존숭하였지만, 이기론에 대한 해석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理·氣의 상관성을 강조하여 理·氣의 관계를 상호적 관계로 보는 종합적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37] 그는 당대 理·氣의 분별을 강조하던 퇴계학파의 견해를 비판하며 理·氣는 불상리(不相離)와 불상잡(不相雜)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므로 이를 조화롭게 포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理를 동정(動靜)을 주재하는 것이라 하며 理의 능동성을 주장한 퇴계학맥의 보편적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다.[38]

---

35) 정재식, 『한국유교와 서구문명의 충돌』, 연세대 출판부, 2004, 175~176쪽.
36) 금장태, 「葛菴 李玄逸의 인물과 사상」『退溪學派의 사상Ⅰ』, 집문당, 1995, 267~281쪽.
37) _____, 「퇴계학파의 理氣論」『退溪學派의 사상Ⅱ』, 집문당, 2001, 30~32쪽.
38) 『국역 대산집』 2, 대산집 제6권 書 「권청대 상일께 답함 갑자년(答權淸臺 相一 甲子)」, 한국고전번역원, 2008.

이상정의 포용적인 사상적 견해는 당시 정조의 탕평책으로 영남남인의 정계 진출에 물꼬가 트인 상황 속에서 조정의 정책방향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재학파가 활동하였던 시기의 영남은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는 천주교를 대표로 하는 새로운 사상의 유입으로 유교적 질서 자체가 위협받던 시기였다. 류치명은 기본적으로 이상정의 이기론을 계승하면서, 더욱더 '理'를 강조하였다. 그는 "理는 동정(動靜)의 묘(妙)로써 주(主)를 삼고, 氣는 동정의 도구로써 바탕을 삼는 것이다"고 하며 이상정의 견해를 이어 理가 동정의 主가 되는 주리설(主理說)의 입장을 견지하였다.[39] 나아가 理의 능동성을 더욱 부각시켜 "理는 살아있는 것으로 유동(流動)의 충만함이 넓고 넓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며 理를 '활물(活物)'로 명시하였다.[40] 그는 理는 우주생성의 주체이며 心의 본체 일뿐만 아니라 氣를 주재(主宰)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또한 성리학의 핵심문제인 사칠론(四七論)에 대해서도 四·七의 性과 情을 대비시켜 이원적으로 파악하였다. 性은 理가 발하는 사단만 있지만, 情은 理가 발하는 사단과 氣가 발하는 칠정이 각각 함께 나누어져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41] 류치명은 퇴계학맥의 주리적 이해를 심화하여 만물이 理의 주재 하에 있음을 말하고, 다시 理가 있어서 나타나는 본연의 현상이 있음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42]

理를 강조하며 氣에 우선하였던 류치명의 인식은 유교와 중화질서를 중심으로 천주교와 서양세력을 철저히 배척하는 척사론의 기저가 되었다. 나아가 전통적 화이관에 입각하여 유교적 질서에 대한 도전을 '중화와 양이(洋夷)·

39) 『定齋集』 권6, 書「答金子翼問目」. "理者 所主以動靜之妙也 氣者 所資以動靜之具也"
40) 『定齋集』 권19, 雜著「理動靜說」. "理無形 氣有跡 故氣之有動靜易見 而理之有動靜難知也……以尊信退陶者 而亦往往爲其所中 至大山先生 爲理氣動靜說……大抵是理活物也 洋洋乎流動充滿 無乎不在 是豈漠然無爲者哉"
41) 설석규, 「정재학파定齋學派 위정척사론의 대두와 성격」, 『국학연구』 4, 2004, 106쪽.
42) 김낙진, 「定齋 柳致明과 西山 金興洛의 本心 중시의 철학」, 『율곡사상연구』 16, 2008, 105~108쪽.

정학(正學)과 이단(異端) · 인류와 금수(禽獸) · 천리(天理)와 인욕(人慾)' 등의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고, 전자의 마땅함으로 후자로 야기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이치로 신념화 하였다. 류치명 역시 시대의 위기에 맞서 理의 강조와 우선을 통해 邪의 위협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상적 대응을 내놓았다.

명 멸망 이후 일본의 화이론은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재해석되었고, 국학의 등장은 일본 중심의 중화사상을 더욱 체계화 하였다. 유교와 신도의 결합은 일본의 화이론을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들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내의 국제질서라는 틀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중화'까지 올려놓았다. 19세기 서양세력의 등장은 그 동안의 국제질서의 인식을 벗어나는 범주였다. 미토학의 단계에서 화이론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미토번은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외국 선박이 내항하기 쉽다는 위험으로 번정(藩政) 초기부터 외국 선박의 내항을 감시하는 파수대가 설치되었다. 19세기를 전후하여 러시아 등 외국의 선박은 빈번하게 미토번 관할의 연안에 출몰하고 있었고, 번의 학자들은 서양세력의 동향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1792년 러시아가 홋카이도의 네무로(根室)에 내항하여 통교를 요청하자 미토번의 학자들의 위기의식은 본격적으로 고조되었고, 그들은 시대문제 해결을 위한 사상적 대응을 내놓았다.

미토학파의 대표 학자인 아이자와 세이시사이는 10세의 나이로 존왕양이론을 주장한 후지타 유코쿠의 문하에 들어가 많은 영향을 받았고, 1799년『대일본사』편찬사업이 되었을 때 스승과 함께 발탁되었다. 그는 1840년 미토번의 번교인 고토칸(弘道館)의 총교(總敎)가 되었고, 활발한 정치 · 학문 활동을 이어갔다. 아이자와 세이시사이는 일찍부터 대외적 위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1824년 미토번의 동쪽 해안에 영국함선이 출현하여 상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번의 명령으로 필담역(筆談役)에 임명되어 직접 영국인들과 만나 필담으로 내항경위를 조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내정 개혁론을 담은『신론(新論)』(1825)[43]을 저술하였고, 이는 미토학의 상징이 되었다.[44]

아이자와 세이시사이는 理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 놓았다. 그는 스스로 유학자라는 인식 하에 道에는 '사해만국(四海萬國)이 모두 敎로 삼을 大道'가 존재하므로, '황신(皇神)의 道와 성인(聖人)의 道를 이분(二分)하는 것'은 잘못이며 둘을 일관하는 道가 전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道에는 理가 필요 없다', '천리(天理)라고 하는 것은 후유(後儒)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며 理에 가치를 두지 않는 기일원론자(氣一元論者)의 모습을 보였다.[45] 이는 근세 일본 유학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던 흐름 중 하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氣를 지리적·선천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정기(正氣)의 나라와 편기(偏氣)의 나라가 구별되나니, 정기의 나라에는 오륜(五倫)이 갖추어졌고, 편기의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일본(神州)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동방에 위치 해 정기(正氣)가 발하는 곳이므로 군신부자(君臣父子)의 대륜(大倫)이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 비교할 곳이 없다(「讀直昆靈」).[46]

---

43) 『신론』은 미토학의 존왕양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후 전국의 존왕양이 지사들에게 경전으로 인정받으며 열광적으로 퍼져나갔다. 『신론』의 내용은 五論으로 분류된다. 「國體 上 · 中 · 下」에서는 일본은 '神州'이며, 고대 황조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충효의 도덕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을 건국했다고 하였다. 천지개벽 이래 황통은 황위의 증거인 三種神器와 함께 대대로 계승되어 왔다고 보았다.「形勢」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동향과 구미 열강의 침략적 야심에 대해 설명하였다. 「虜情」에서는 구미 각국의 세력을 강대하게 한 것은 기독교라고 하며 이를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守禦」에서는 침략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빨리 취해야 할 구체적 정책(국방 강화, 해군 창설, 군수물자, 식량의 비축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長計」에서는 일본을 영구히 다스리기 위한 만세불면의 정책인 '제정일치'를 확립할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가루베 다다시 · 가타오카 류 엮, 고희탁 · 박홍규 · 송완범 옮김, 『교양으로 읽는 일본사상사』, 논형, 2010, 192~193).

44) 박훈, 「德川末期 後期水戶學의 民衆觀 - 會澤安의 『新論』을 중심으로 -」, 『역사교육』 85, 2003, 140~141쪽.

45) 桂島宣弘, 「幕末에 있어서의 「自他認識」 - 後期水戶學과 幕末國學을 中心으로 -」, 『한국종교연구회회보』 6, 1995, 49쪽.

46) 會澤正志齊, 「讀直昆靈」(鷲尾順敬 編, 『日本思想鬪諍史料』 7), 東方書院, 1969, 101쪽.

그는 '정기'와 '편기'를 기준으로 일본은 '정기'이자 '양국(陽國)'이라 주장하며, 정기의 발현으로 일본의 대륜은 전 세계에 비교할 바가 없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理의 존재와 상관없이 '정기'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대도(大道)가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주자학에서 理는 천지만물에 性을 부여하는 원리이고, 만물은 氣의 작용에 의해 차별성이 생긴다고 보았다. 즉 氣의 작용에 의한 차별성은 보편적 원리인 理에 기반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었다.[47] 그러나 아이자와 세이시사이는 '일본은 태양이 뜨는 동방에 위치해 정기가 발생하는 곳'이라 말하였듯이 氣를 선천적·고정적인 개념으로 보았고, 이를 활용해 일본이라는 국가에 우월성을 부여하였다. '절대적 보편적 원리로 인식되던 理의 부재'에서 '지리적·선천적으로 고정된 기'의 작용만으로도 '대도가 실현'되었다는 것은 理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유학의 전개과정에서 신도와 결합한 자국 중심의 중화사상 형성은 주자학적 理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흐름이 미토학파 단계에 이르러 '절대적이고 보편적 원리의 理의 부재'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서구세력의 접근으로 '동아시아의 유교질서'를 초월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확인된 시점에서 이를 지탱하였던 보편적 원리인 理의 존재는 필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일본의 지리적 입지에 氣의 작용을 결합시켜 氣의 불변성·고정성을 강조하였고, 일본은 '정기가 발하는 곳'이라는 차별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천황의 신격화와 일본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국체론(國體論)'의 강조로 이어졌다.

2. 기독교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48]

47) 가쓰라지마 노부히로 지음/김정근·김태훈·심희찬 옮김, 『동아시아 자타인식의 사상사』, 논형, 2009, 106쪽.

48) 여기서 '기독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개신교에 한정되는 용어가 아니라, 'Christianity' 즉 원어적 의미인 구교(천주교)와 신교(개신교)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주자학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모든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며 이를 철저히 배척하였다. 특히 18세기 이후 '서학'으로 명명되어 전파되고 있었던 천주교는 유교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상이었고, 그 파급력은 매우 위협적이었다. '사학(邪學)을 물리치려면 무엇보다 정학(正學)을 먼저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풍속의 교화를 이루게 되면 이단과 사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는 보편적 인식만을 고수하기엔 천주교의 확산 속도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척사'는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영남은 척사의 상징적인 지역이었고, 정조도 이점을 높이 사서 윤음(綸音)을 내려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에 치제(致祭)한 바 있었다.[49] 그러나 천주교에 대한 배척과 탄압이 강화되어 가면서 교도들은 영남의 곳곳으로 숨어들기 시작하였다. 순조 1년(1801) 발생한 신유사옥은 그들의 유입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문경·영양·청송 등에선 교유촌이 형성되어 점점 천주교의 세력을 확산시켜 나갔다.[50] 영남의 학자들은 척사론을 공고히 하며 위기에 대응해 나갔다. 그들은 안정복 계열의 근기 남인과 교유하면서 그들의 척사론과 뜻을 함께 하였고, 더욱 보수적이고 엄격한 척사의 입장에서 미진한 부분은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사상의 논리로 보완하였다.

1822년(순조 33) 완성된 『이학집변(異學輯辨)』은 19세기 영남 내 호파계열의 학자들의 이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집대성 한 것이었다.[51] 특히 류

49) 정조 15년(1791) 신해사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정조는 先正의 遺風으로 영남지역이 邪學에 물들지 않았음을 크게 칭찬하며, 이황과 이언적의 후손에게 특별히 관직을 제수하였다(『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24일 을미).

50) 영남에 천주교도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척사의 상징적 지역'이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그 결과 영남에서는 순조 15년(1815), 순조 27년(1827) 대대적인 천주교도들에 대한 축출이 이뤄졌다(정성한, 「대구·경북지역 초기 가톨릭 전래사 연구 -교유촌의 형성과 박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32, 2009).

51) 류건휴가 편찬한 『이학집변』은 5권 6책 760여 章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단비판서이다. 『이학집변』은 '①권1:老子,莊子,列子(7%)/楊朱,墨子(2%)/管子(1%미만)/荀子,揚子(2.5%)/孔叢子(1%미만)/文中子(1%미만)/道家(1.5%), ②권2·권3: 禪佛(38%), ③권4: 陸學(21%), ④권5: 王學(8%)/蘇學(1.5%)/사학史學(3%), ⑤권6: 天主

건휴(柳健休, 1768~1834)는 천주교에 대하여 “천주학의 이론은 불교와 노장의 찌꺼기를 주워 모은 것으로, 지극히 비루하여 사람을 속일 정도도 못되었다”라고 비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도학을 모두 침체시킬 만큼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52] 그는 14개의 주제로 나누어 천주교에 대한 비판을 정리하였으며,[53] 영남 내 보수적이고 철저한 척사론을 계승해 나갔다.

류치명의 척사론은 『이학집변』으로 완성된 영남 남인의 척사론을 계승하고 따르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 이상 천주교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학을 밝히고 수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는 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학맥의 이론적 기준을 정립하였고, 문집의 발간·교정을 주도하며 강학활동에 앞장섰다. 그는 척사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천주교가 ‘왜 이단일 수밖에 없는가?’를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론적으로 논증하였다.[54]

류치명 사후 병인양요(1866년)를 시작으로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하고, 강화도조약(1876년)을 통해 개항이 현실화되자 척사의 대상과 방향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그들에게 천주교는 서양 세력과 동일시되었고, 금수(禽獸) 그 자체였다. 류치명의 제자 이돈우(李敦禹, 1807~1884)는 천하의 도를 ‘정도

學(6%)/記誦學, 詞章學(5%)’으로 구성되어 있다(류건휴, 『이학집변』 1 「해제(서정형 지음)」, 한국국학진흥원, 2013, 24~26쪽).

52) 류건휴, 『이학집변』 1 「이학집변서」, 한국국학진흥원, 2013, 49쪽.

53) 『이학집변』 권6 「천주학」의 각 조목은 다음과 같다(류건휴, 『이학집변』 3 「천주학」, 한국국학진흥원, 2013, 189~243쪽). “①예수가 한나라 때 태어났다는 것을 변파함(辨耶穌之生於漢時), ②양학의 상제와 천주를 변파함(辨洋學上帝天主), ③가씨가 삼신을 해석한 것을 변파함(辨柯氏釋三辰), ④천주학의 공부를 변파함(辨天學工夫), ⑤천주학에 남녀 구별이 없음을 변파함(辨天學男女無別), ⑥영신불멸을 변파함(辨靈神不滅), ⑦금수의 세상에 대해 변파함(辨禽獸世), ⑧제사에 마귀가 와서 먹는다는 것을 변파함(辨祭祀魔鬼來食), ⑨서학이 중국에 들어온 것을 논함(論西學入中國), ⑩서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논함(論西學入東國), ⑪천주경을 『시』·『서』에 견준 것을 변파함(辨天主經疑『詩』·『書』), ⑫서역이 천하의 중심임을 변파함(辨西域爲天下中), ⑬서양의 역법을 사용한 것을 변파함(辨用西洋曆法), ⑭서양인의 지해와 기예를 변파함(辨西洋人知解技藝)”

54) 김지은, 앞의 논문, 2016, 210~217쪽.

(正道)'와 '사도(邪道)'로 구분한 후 '사도'가 흥할 경우 천지가 바뀌어 중국이 오랑캐의 나라가 되고 사람이 짐승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며 중화세계의 붕괴를 예견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사상적 대응만으로는 사도를 물리칠 수 없다고 보고, 국방력 강화를 통한 척사를 주장하였다.[55]

김도화(金道和, 1825~1912)는 김홍집의 『조선책략』의 내용을 전해 듣고, 「斥邪說疏」를 작성하여 척사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켰다.[56] 특히 그는 '야소교(耶蘇敎)'를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며 '야소교'와 '천주교'의 차별성을 부정하고 이를 단호하게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야소의 교리는 재화를 빼앗고 풍속을 음란하게 하고자 하는 본질을 숨기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양세력들이 주장하는 통상을 통한 국가 재정의 확충과 국방력 강화는 유교적 문화를 붕괴시키려는 본질을 숨기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 '야소의 학'은 음란하고 더러움을 일삼는 것으로 이를 믿게 되면 남녀 · 부부 · 부자 · 군신의 구분이 사라지는 등 인간의 떳떳한 본성이 무너지고 예의가 모두 사라져 금수와 같이 인류에 포함 시킬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조선후기 영남의 학자들은 천주교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를 서구문물 및 그 세력에 대한 배척으로 확대하였다. 고종 집권 이후 서양세력의 통상 요구가 본격화되었고 일본에 의해 개항이 현실화 되면서 서양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대외적 위기를 조선이라는 국가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되는 '정치적 · 외교적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중화문화를 계승한 유일한 유교사회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문화적 · 사상적 위기'로 받아들였고, 후자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다. 그 결과 대응방법 역시 보편적인 척사론의 궤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국제정세를 고려하며 국력증강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서원의 복설 및 퇴계학의 부흥을 통하여 '정학을 바로 세워 사학을 소

55) 『肯庵集』 권2, 疏 「應旨陳三綱九目疏」.
56) 『拓菴續集』 권2, 疏 「斥邪說疏」.

멸하자'는 전통적인 대응방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57]

도쿠가와 막부 시기 일본에서도 서양은 기독교와 동일시되었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서양이 포교를 통해 친서양적 분위기를 조성한 후 군사적으로 정복한다는 간접 침략의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그것이 '쇄국'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후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서양의 간접 침략론이 다시 대두되었다. 그들은 서양인을 이적이라 매도하였고, 기독교를 신봉하는 서양에 대한 깊은 위기의식은 미토학의 중요한 기저가 되었다.[58]

미토번은 러시아의 침략가능성을 항상 염려하였다. 1792년 러시아 사절 럭스만이 네무로(根室)에 내항하여 통교를 요청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후지타 유코쿠는 필담역을 수행하였는데, 그는 러시아의 일본 접근에는 침략적 야심이 있다고 단정 짓고 양이론(攘夷論)을 주장하였다.[59] 미토번의 9대 번주인 도쿠가와 나리아키(德川斉昭, 1800~1860) 역시 19세기 초 일본의 정세를 '내우외환(內憂外患)'라 표현하며 서양세력의 침략을 경계하였다. 특히 에조지(蝦夷地)에 러시아가 접근해올 가능성을 매우 위급한 '외환'으로 인식하였고,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결국 일본 전체를 차지 할 것이라 염려하였다.[60]

아이자와 야스시는 『신론』에서 더욱더 대외 위기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57) 19세기 말 정재학파의 척사론은 이항로의 화서학파 · 기정진의 노사학파의 척사론과 비하여 국제정세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그 방안도 구체적이고 개혁적이지 못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영남남인들이 처해있었던 정치적 상황 및 학문적 가치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중화문화 수호에 대한 사상적 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58) 와타나베 히로시, 김선희 · 박홍규 옮김, 앞의 책, 341~342쪽.

59) 후지타 유코쿠는 매우 강력한 양이론자였다. 1824년 미토의 해안에 영국 선박이 내항하자 후지타 유코쿠는 그의 아들 후지타 도코에게 "근년 外夷가 일본 근해에 출몰하여 연안의 인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등 傍若無人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단호하고 확고한 대응을 취하지 않은 채 無事安逸로 일관하고 있다. 서둘러 가서 영국인들은 모두 죽여라"고 말하였다(가루베 다다시 · 가타오카 류 엮, 고희탁 · 박홍규 · 송완범 옮김, 앞의 책, 191쪽).

60) 桂島宣弘, 앞의 논문, 2005, 103~105쪽.

서이(西夷)가 날마다 영토가 넓어지고 의욕이 충만한 것은 그 지혜와 용맹이 남보다 크게 뛰어나고 예악형정(禮樂刑政)이 정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야소교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사벽천루(邪辟淺陋)하여 논한 것도 없지만, 그런 까닭에 어리석은 민중을 쉽게 유혹한다고 보았다. 그는 서양이 남의 나라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무역을 통해 그 허실을 탐지한 뒤에 틈을 노릴 만하면 군대를 일으켜 습격하고, 안 되면 기독교를 전파해 민심을 현혹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백성들이 스스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서양은 그들의 환영을 받으며 쳐들어간다고 주장하였다.[61] 즉 그는 서양이 통상을 요구하고 야소교를 포교하는 것은 그 나라를 병합하고 땅을 빼앗기 위한 술수의 하나로 인식하였고, 이는 「척사설소」에서 보인 김도화의 야소교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자와 야스시는 기독교와 서양세력의 위협에 대응하여 백성들의 충성을 기독교(서양)에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일본'이라는 국가로 향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리고 백성의 충성을 귀속시킬 대상을 천황으로 대표되는 '일본'이라는 국가로 명확히 설정하고 철저한 존왕(尊王)입장을 취하였다.[62] 그는 천황을 정점에 두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을 주장하였다,

> 제왕이 四海를 보전해서 오래도록 평안하고 길이 잘 다스려져 천하가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지하는 방법은, 만민을 권위로 복종시켜서 일세를 장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億兆가 한 마음이 되어 모두 그 윗사람을 어버이처럼 섬겨 차마 이반하지 못하는 진실한 마음이야 말로 참으로 믿을 만한 것입니다.[63]

나아가 그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術'에 대하여 논하였다. '술'이란 먼저

61) 會澤正志齊, 「新論」『水戶学』(<日本思想大系 53>), 岩波書店, 1978, 94~95쪽 ; 아이자와 야스시 저, 김종학 역, 앞의 책, 137~138쪽.
62) 박훈, 앞의 논문, 2003, 144~154쪽.
63) 會澤正志齊, 「新論」『水戶学』(<日本思想大系 53>), 岩波書店, 1978, 52쪽 ; 아이자와 야스시 저/ 김종학 역, 위의 책, 2016, 15쪽.

일본적 '국체'를 분명히 하고, 다음으로 '충효일치'를 구현할 '제정일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孝와 같은 감정으로 군주에게 충절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충효는 하나가되며, 교훈이나 올바른 풍속은 일일이 훈계하지 않아도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된다는 것이다. 그는 '제정일치'의 기본을 국가적 '제사의 예(祀禮)'로 보았다. 즉 천자(天子) 스스로가 '천신(天神)·천조(天朝)'에 제사를 지내고 조정(朝廷)이 이를 따르면, 백성들은 일일이 훈계하지 않아도 스스로 각자의 개개인이 군주에게 충심을 품고 조정을 우러러보게 되며 이로써 백성의 뜻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64] 다시 말해 주요한 국가 제사를 천황의 주도 하에 전국적인 규모로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 백성이 참여하면서 국가의 존재를 인식하고, 국가와의 일체감을 각인하도록 하는 것이다.[65]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이자와 야스시가 기독교가 민심을 홀려 포교에 성공한 후 사회를 장악해 간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민심을 모으기 위해 기독교 포교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국가 유지를 위하여 기독교에 현혹되지 않는 민심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천황이 국가적 제사를 주도하는 방법으로 백성들의 충성심을 깨우쳐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 국가와 천황을 일치시키려 한 것이다.

미토학파의 양이론은 일본의 도덕적 수준이 서양 보다 우월하다는 차별적인 문화 의식과 기독교의 침략성에 대한 위기감에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서양사정에 대하여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신론』을 살펴보면 아이자와 야스시가가 러시아나 일본열도의 북방 뿐 아니라 서양이나 아프리카·아메리카 대륙의 사정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8세기 후반 융성했던 난학(蘭學)과 한역양서(漢譯洋書)를 통해 얻은 정보였다.[66]

---

64) 桂島宣弘, 「'근세제국'의 해체와 19세기 전반기의 사상동향」, 『일본근대학연구』 39, 2013, 13~15쪽.
65) 박훈, 앞의 논문, 2003, 144~154쪽.
66) 박훈, 앞의 논문, 2003, 140~141쪽.

정재학파의 척사론과 미토학파의 양이론은 모두 기독교라는 서양세력의 사회적 침투를 경계하며 나온 사상적 대응이었다. 그들은 서양을 열등한 위치에 두고 이를 배척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함께 하였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는 차이를 보였다. 정재학파는 '정학을 수호하면, 사학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자학을 더욱 강조하였고, 천주교의 교리를 주자학의 논리로 배척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미토학파는 일본의 존립을 위하여 기독교를 대신할 새로운 체제 유지 사상을 확립하였다. 즉 존왕양이론을 바탕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유지해나갈 것을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자생적으로 양학(洋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양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가능하였고, 이후 일본의 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서양의 기술 및 문화 등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Ⅴ. 맺음말

명청교체는 이적(夷狄)이 한족의 중국을 대신하여 華가 된 사건으로 기존의 중화사상을 전복시키는 큰 충격이었다. 조선과 일본은 중화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였고, 청 중심의 국제관계 속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유교'가 갖는 사회적 · 사상적 · 문화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조선과 일본의 중화사상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에게 '중화문화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인식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는 가치와 자부심이었으며, 그 전승은 역사적 사명감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유교는 도덕적 측면의 사회교화 사상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일본에게 중화는 유교문화가 아닌 일본 그 자체라는 자국 중심적인 해석이 도출되었다. 그들은 고대의 신도를 유교와 결합해 천황을 정점에 둔 일본적 세계관을 형성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영남과 미토번은 조선과 일본에서 유학에 기반을 둔 학문적 전통을 확보한 지역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문물의 유입이라는 대외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그 극복을 위한 사상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다. 퇴계학의 도통을 계승하였다는 정재학파의 학문적 위상은 유교 사회를 지키기 위한 보수적인 척사론을 형성시켰고, 이는 학파 내에서 계승되어 온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이 더해져 '척사운동'으로 표출되었다. 미토번은 도쿠가와 막부 시기 학문과 유학이 번성했던 곳으로,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하여 유학과 신도 및 다양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미토학'을 성립시켰다. 미토학은 존왕론과 양이론을 바탕으로 막말 '존왕양이운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

정재학파와 미토학파의 대외적 위기에 대한 사상적 대응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였던 중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理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정재학파는 천주교로 대표되는 사상적 위협에 속에서 유교문화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理의 능동성에 더욱 주목하였다. 理를 강조하며 氣에 우선하였던 정재학파의 인식은 유교와 중화질서를 중심으로 천주교와 서양세력을 철저히 배척하는 척사론의 기저가 되었다. 반면 미토학파에서는 신도와 결합한 일본 중심의 중화사상의 영향으로 '절대적 보편적 원리로 인식되던 理의 부재' 가 나타났다. 그들은 일본의 지리적 입지에 氣의 작용을 결합시켜 氣의 불변성 · 고정성을 강조하였고, 일본은 '정기가 발하는 곳'이라는 차별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천황의 신격화와 일본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국체론(國體論)'의 강조로 이어졌다.

정재학파와 미토학파는 모두 기독교라는 서양세력의 사회적 침투를 경계하며, 서양을 열등한 위치에 두고 이를 배척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였다. 정재학파는 서양열강의 통상요구와 개항이라는 대외적 위기를 중화문화를 계승한 유일한 유교사회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문화적 · 사상적 위기'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정학을 바로 세워 사학을 소멸하자'는 인식 아래 천주교

의 교리를 주자학의 논리로 배척하며, 서원 복설을 주장하는 등 주자학의 부흥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토학파는 일본의 존립을 위하여 기독교를 대신할 새로운 체제 유지 사상을 확립해 나갔다. 즉 존왕양이론을 바탕으로 '국체'를 강조하고, 제사를 이용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가를 유지해나갈 것을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의 존립을 위해서는 서양의 기술 및 문화 등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과 일본은 명청교체 이후 새롭게 재편된 동아시아 역사를 공존하며, 자국의 정체성을 고민하였다. 유학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양국은 중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 놓았고, 각자 자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사상을 형성하였다. 이는 서구문물의 유입과 개항이라는 대외적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를 가져왔다. 즉 유교문화를 중화의 상징으로 여긴 조선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중화의 신념화를 바탕으로 척사를 전개하였고, 유교사회의 수호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 그 자체를 중화로 정의하며, 가변적인 화이론을 바탕으로 일본의 존립과 국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유연한 사상적 대응을 보여주었다.

19세기 말 한국과 일본이 상반된 역사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은 단순히 양국의 개항 시기와 서양적 근대화의 성공 여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명청교체 이후 양국에서 전개된 중화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그 전개과정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정조실록』
『肯庵集』, 『定齋集』, 『拓菴續集』
『국역 대산집』
류건휴, 『이학집변』, 한국국학진흥원, 2013.

會澤正志齊, 「讀直昆靈」(鷲尾順敬 編, 『日本思想鬪諍史料』 7), 東方書院, 1969.
會澤正志齊, 「新論」 『水戶学』(<日本思想大系 53>), 岩波書店, 1978.

박 훈,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2014.
성희엽, 『조용한 혁명, 메이지유신과 일본의 건국』, 소명출판, 2016.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이병휴, 『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일조각, 1999.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정재식, 『한국유교와 서구문명의 충돌』, 연세대 출판부, 2004.
한국18세기학회, 『위대한 백년 18세기』, 태학사, 2007.

荒野泰典 編, 『江戶幕府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가루베 다다시 · 가타오카 류 엮, 고희탁 · 박홍규 · 송완범 옮김, 『교양으로 읽는 일본사상사』, 논형, 2010.
가쓰라지마 노부히로 지음/김정근·김태훈·심희찬 옮김, 『동아시아 자타인식의 사상사』, 논형, 2009.
아이자와 야스시 저, 김종학 역, 『신론新論』, 세창출판사, 2016.
와타나베 히로시 저, 박홍규 역,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 예문서원, 2007.
_____, 김선희 · 박홍규 옮김, 『일본 정치사상사 : 17~19세기』,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石田一良 지음, 성해준 · 감영희 옮김, 『일본사상의 이해』, J&C, 2004.

금장태, 「葛菴 李玄逸의 인물과 사상」『退溪學派의 사상Ⅰ』, 집문당, 1995.
_____, 「퇴계학파의 理氣論」『退溪學派의 사상Ⅱ』, 집문당, 2001.
_____, 「19세기 한국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와 시대인식」, 『국학연구』 15, 2009.
김낙진, 「定齋 柳致明과 西山 金興洛의 本心 중시의 철학」, 『율곡사상연구』 16, 2008.
김지은, 「정재 류치명(1777~1861)의 현실인식과 경세관」,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_____, 「정재 류치명의 척사론과 그 전승」, 『역사교육논집』 60, 2016.
_____, 「정재 류치명의 문인록과 문인집단의 분석」, 『조선시대사학보』 85, 2018.
민두기, 「청조의 황제통치와 사상통제의 실제 : 증정역모사건과 『대의각미록』을 중심으로」『중국근대사연구』, 일조각, 1990.
박 훈, 「後期水戶學의 變通論과 君臣觀」, 『일본역사연구』 14, 2001.
_____, 「德川末期 後期水戶學의 民衆觀 - 會澤安의 『新論』을 중심으로 -」, 『역사교육』 85, 2003.
설석규, 「정재학파定齋學派 위정척사론의 대두와 성격」, 『국학연구』 4, 2004.
이봉규, 「實學의 유교사적 맥락과 유교 연구 탐색」, 『태동고전연구』 35, 2015.
이새봄, 「포스트-소라이학(徂徠学)의 맥락으로 읽는 도쿠가와 후기 사상사의 논점」, 『일본비평』 19, 2018.
이용수, 「古學 · 國學 그리고 尊王攘夷論」, 『東洋古典硏究』 30, 2008.
이희복, 「일본적 유학의 창출 — 근세일본사상사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 『일본학보』 64, 2005.
_____, 「미토학(水戶學)을 둘러싼 근대성 담론 -비토 마사히데의 「미토학의 특질」-」, 『일본사상』 26, 2014.
정성한, 「대구·경북지역 초기 가톨릭 전래사 연구 -교유촌의 형성과 박해를 중심으로-」, 『신학_____, 「19세기에 있어서 한 · 일 사상사의 일고찰 - 後期 水戶學과 許愈 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남명학연구』 19, 2005.과 목회』 32, 2009.
하영휘, 「柳重教(1821~1893)의 춘추대의, 위정척사, 중화, 소중화」, 『민족문학사연구』 60, 2016.
허태용,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변동과 조선왕조의 정치 · 사상적 대응」, 『역사학

보』 221, 2014.
桂島宣弘,「幕末에 있어서의 「自他認識」 - 後期水戶學과 幕末國學을 中心으로-」,『한국종교연구회회보』6, 1995.
_____,「19세기에 있어서 한·일 사상사의 일고찰 -後期 水戶學과 許愈 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남명학연구』19, 2005.
_____,「'근세제국'의 해체와 19세기 전반기의 사상동향」,『일본근대학연구』39, 2013.
미야지마 히로시,「'유교적 근대론'과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위치」『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 동아시아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2015.

Abstract

Comparison of Jeongjae School and Mito School Philosophical Responses on the Aquisition of Western Culture

Kim, Ji-eun

The transition from Ming to Qing witnessed the barbarians(夷狄) replace the Han Chinese and become the Hwa(華) of China. This event was shocking, overturning the old ideas of Sinocentrism(中華思想). Both Joseon and Japan had contemplations over the nature of Sinocentrism and started to re-establish their ident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round Qing.

In Joseon, the Confucian culture was based on the idea that the Han Chinese were the only successor of Sinocentrism, which represented the value and pride that transcended states and people. Its transmission represented a historical sense of mission. In Japan, however, Confucianism remained at the level of social enlightenment ideology in the moral aspect. Thus, they had an interpretation around their own state that Sinocentrism was Japan itself rather than Confucian culture.

Jeongjae School and Mito School developed completely different patterns of ideological reactions to the external crisis due to thei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Sinocentrism or Confucian social order

they tried to keep. The first difference emerged in the perception of Lee(理) between them. The Jeongjae School of Yeongnam put an emphasis on the superiority and absoluteness of Lee to safeguard the tradition of Confucian culture in the middle of ideological threats represented by the Catholic Church. The Mito School, on the other hand, discussed the deconstruction of Lee under the influence of Japan-centered Sinocentrism combined with the believers. Their emphasis was on the invariability and fixability of Gi.

Regarding the Confucian culture as a symbol of Sinocentrism, Jeongjae School developed a movement of expelling wickedness in the ideological aspect of transcending states and people and insisted on the protection of Confucian society. The Mito School , however, showed ideological responses to find the top priority in the protection of Japan's existence and national interest based on the flexible Hwai theory. Thes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Sinocentrism and its changing processes after Qing replaced Ming had huge impacts on the history of both states.

key words :
Jeongjae School, Mito School, Sinocentrism, Wijeong-chuksa, Revere the Emperor and expel the barbarians